

병충해와 전쟁 중인데...농산물 수입 확대에 농심 분통

장성 사과농가 80곳서 갈반병...해남·신안선 고추 탄저병 피해
벼멸구·애멸구 개체수 확산 시름...전농 “수입 확대 중단”촉구

이상 기후로 사과, 고추, 벼 등 병충해가 부쩍 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린 농민들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정부 입장이 전해지면서 “올 화통 터지기 일보직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에서 사과 갈색무늬병(갈반병), 고추 탄저병 등 전염병이 돌고 벼멸구·애멸구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늘면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찾은 장성군 북하면의 한 사과밭에서 만난 농민들은 “갈반병이 퍼지고 있는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비에 방제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고향인 장성으로 귀농, 5년 전 사과농사를 시작했다는 김삼영(65)씨는 “이미 때아닌 무더위로 햇볕데임(일소)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여기에 갈반병까지 생기니 착잡하다”며 “표피가 상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습한 날씨가 이어지니 상해버린 곳에 벌레들이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됐다. 이제 탄저병이 올 시기도 됐는데 비가 오락가락 하니 농약 치는 타 이밍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갈반병은 사과 잎에 원형의 흑갈색 반점이 확대되다가 2~3주 후에 황색으로 변하며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사과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원인이 다

양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작물에 속한다.

갈반병은 빗방울에 섞인 포자에 의해 퍼지며, 잎을 떨어뜨려 사과의 당도·크기 저하를 초래한다.

사과 1알이 잘 자라기 위해선 최소 50장 이상 잎이 필요한데, 병든 잎이 낙엽되며 광합성이 부족해 수확량과 동시에 사과의 품질이 떨어져 값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비가 그치고 나면 탄저병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터라 농민들은 긴장을 늦출 새가 없는 실정이었다.

서남해안 고추 농가에는 이미 탄저병이 곳곳에 발생했다.

전남농업기술원도 해남, 신안 2곳의 고추 농가에서 발생한 탄저병을 확인한 상태다.

해남군 황산면에서 13년째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박수열(57)씨는 “마을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 중 20%의 작물은 이미 무르고 터져있는 상태다. 이게 감염이 돼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다가 고추를 말릴 때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썩어 문들어지는 상황이라 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탄저병이 오면 고추농사는 끝나는 거다. 미리 예방해야하는데 박자를 놓쳐버리면 치료 약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두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 북하면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삼영씨가 16일 오후 병해를 입은 나무를 살피고 있다.

농에서는 해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멸구류 발생 조사 결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애멸구·한등멸구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멸구는 국내에서 월동하거나 5~6월 중국에서 유입되며, 한등멸구는 6~7월 중국 남부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해충으로, 모두 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즙성 해충이다.

현재는 발생 초기 단계이나, 방제가 늦어 밀도가 높아질 경우 벼 이삭과 줄기에서 즙액을 흡수해 생육 저해 및 수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서남해안 4개 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병구 광주전남살생산자협회장은 “벌써부터 흰애멸구가 성행하고 있는 게 보인다. 미리 방제하지 않으면 성충들이 또 알을 까 벼 생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방제작업에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병·해충 확산에 고민이 큰데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해되며, 만약 현실화되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쌀 4만t에서 배 이상 수입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는 TRQ(자유관세할당) 수입남발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농촌은 농업과파괴로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오는 1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중증장애인에 침 뱉고 소변까지... 법원, 학대한 20대 징역형 선고

“엽기적·반인권적”...1년형

중증 지적 장애인의 머리에 침을 뱉고, 몸에 소변을 누는 등 학대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4일 의정부시의 한 카페 외부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B(25)씨의 뒤통수에 수 회 침을 뱉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2일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대변기 칸 안에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형 오줌 싸자요, 왜 가만있어, 그것밖에 안돼?”라며 B씨의 신체에 소변을 보는 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의정부시에서 B씨에게 전화해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전화 끊는 순간 네 가족 다 죽는다”는 등 협박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중증 지적 장애인인 B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소변과 커피를 섞어서 B씨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심도 든다. 범행의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이다”며 “A씨는 두꺼운 분량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에서 억지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마산단 유령회사 검증 소홀 영광군 45억원 뜯길 판

보조금 유용 업체 대표 징역 8년

영광군이 대마산단단지 내 식품공장 유치에 치중하면서 검증을 소홀히해 유령 회사에 보조금 45억원을 지급했다가 보조금 회수조차 못 할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뚜두킹 대표인 A(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자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법인을 세운 뒤, 2019년 4월 대마산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군만두 제조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영광군으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

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보조금 60억원을 받으면 493억여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A씨가 영광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를 자기 자본금과 금융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며 각종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해외 수출 제의를 받아 업무 조율 중이라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달리, A씨는 사실상 법인만 설립해 놓은 상태로 물적·인적 기반도 없고, 국내 시장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고, 해외 수출 제의도 받은 적 없었던데다 자본금도 없어 은행권 PF대출도 받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약 당시 A씨는 별도로 운영하던 냉동만두

등 제조·판매 회사에 대해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이윤 10억여원의 채무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이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해 연도에 편성된 보조금(90억 2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으며,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영광군 내 투자를 염두에 둔 다른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기회가 상실됐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목적 또한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갑질 피해 호소 전남대 대학원생 안타까운 죽음

유서 남겨...경찰 수사 나서

전남대 대학원생이 업무 스트레스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원생 A(24)씨

유족들은 학교 연구실에서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께 전남대 생활관 16층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당시엔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A씨가 새벽 시간대까

지 업무 지시를 받았고 평일·주말도 없이 연구실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씨의 휴대폰 속 SNS ‘나와의 채팅방’에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발견, 경찰과 학교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학교측은 해당 교수와 연구원을 업무에서 분리시키고 대학원장과 학생처장, 인권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